

마을 사랑방에 찾아온 봄맞이 오페라

동산동 무지개 작은도서관-소리노리오페라단과 함께 '클래식콘서트'

봄맞이 만개한 봄을 맞아 전북 출신 음악가들이 선보이는 오페라 공연이 동산동 주민들의 사랑방인 무지개 작은도서관에서 열렸다.

무지개 작은도서관(관장 송연홍)은 지난달 31일 동산동주민센터에서 동산동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으로 전주소리노리오페라단과 함께 하는 2018 무지개작은도서관 클래식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공연을 맡은 전주소리노리오페라단은 설정훈 등 클래식에 대한 신선한 접근을 표방하는 9명의 전북 출신 젊은 음악가들이 모인 단체다.

이날 전주소리노리오페라단은 △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합창곡 △레하르의 '나의 마음은 당신의 것' △퐁세니의 '잔혹한 운명' △오렐라호 인형의 노래 △푸차니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베르디 '죽목의 노래' 등 봄날의 파스함을 느낄 수 있는 오페라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각 작품마다 해설을 덧붙여 어린이와 어르신 등 평소 클래식과 오페라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주민들도 쉽고 재밌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진행했다.

/채규남 기자



무지개 작은도서관은 지난달 31일 동산동주민센터에서 동산동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으로 전주소리노리오페라단과 함께 하는 2018 무지개작은도서관 클래식콘서트'를 열었다.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재난안전 체험교육

전주시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설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3일과 4일 2일간에 위치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위기상황에서 자신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화재진압과 화재대피, 교통안전, 지진·태풍체험 등 재난종합체험을 통해 대응능력을 키웠다. 또, 일상생활에서 심정지 등 응급환자를 목격할 경우 즉시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 등 응급처치를 통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대처방법을 배우는 전문 응급처치교육도 받았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올해로 4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기르도록 돕고 있다"라며 "전주시 사회복지시설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진안 안전면, 새봄맞이 환경정화활동

진안군 안전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직원, 기관·사회단체,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안전면 주요 도로 시설 등 쓰레기 수거와 함께 면 소재지 용담호 유류부지 경관단지 꽃길 조성을 위한 꽃과 묘목 식재 활동을 펼쳤다.

지역 내 경관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용담호 옛길인 보현마을에서 괴정마을까지 권역별로 구분하여 철쭉 2,000주와 할미꽃 1,000주 그리고 꽃잔디 약 3,000㎡를 식재했다.

이날 식재한 꽃과 묘목에 불, 거름주기 등 구역별로 기관사회단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평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 면사무소 주변 환경 정화 활동

이평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은 지난 2일 면사무소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어르신들은 이날 면사무소 앞 화단과 화분 버스 정류장 화분, 이평면 복지회관과 발복장터와 감나무 화분에 꽃을 심었다. 또 주변에 있는 각종 쓰레기들과 오물들을 수거했다.

면은 "어르신들이 애써 주신 덕분에 면사무소가 한결 쾌적해져 업무 능력이 높아짐은 물론 민원인들에게도 산뜻한 분위기를 선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유=김대환 기자

순창군보건의료원 결핵퇴치 위한 예방홍보 캠페인

순창군보건의료원이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최근 순창읍 재래시장 일원에서 결핵 바로알기 홍보 캠페인을 전개 했다.

결핵은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호흡기 질환으로 주로 폐에서 발생하지만 다른 신체부위에서도 질환을 일으킬수 있으므로 홍보 캠페인을 통하여 결핵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홍보용 마스크 등을 배부 했다.

결핵의 감염 경로는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결핵균이 감염되며, 결핵의 주요증상으로는 2주이상 기침, 발열, 수면중 식은땀, 체중감소 등이 나타나며, 6개월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고, 치료시작 후 약 2주까 경과하면 전염성이 소실된다.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는 결핵의심 시 내원하면 연중 무료 결핵예방 검진을 실시 하고 주민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무주경찰, 주민만족 위한 '엘사' 운동 전개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3일 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대인 접촉부서 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인과의 112 접촉고객 등 주민만족 향상을 위한 '치안 고객만족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엘사(Elsa)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엘사(Elsa)는 2013년도에 개봉한 '겨울왕국' 영화의 주인공이지만, 무주경찰은 Explain(설명하다), Listen(귀 기울여 듣다), Speed(신속하게), Attitude(몸가짐)의 네 단어의 의미를 붙여 치안고객(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특히, 컨설팅강사로 초청된 전북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 이경우 경정은 치안고객 만족도 향상의 이유와 구체적인 주민 응대방법, 고객만족도 향상 방법을 설명하고, 참석 직원들 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었다.

윤중섭 서장은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치안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 시키는 것은 경찰 기본의 임무로서 민원부서, 112부서, 수사부서, 교통사고부서 등 모든 대인부서 직원들은 '신속한 출동', '친절한 응대',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민들의 치안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경찰서, 청탁금지법 반복 순회 교육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분서 각 가능 및 지·파출소를 방문 개정 내용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갖고 직원들이 빠르게 숙지하여 청렴문화가 이어지도록 반복적으로 교육을 펼치고 있다.

전 직원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부패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바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설명과 위반 사례에 대해 유형별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직원들이 알기 쉽게 들었다.

안수영 경사는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고 청렴 고창경찰의 일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재 서장은 "스스로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고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주민이 믿고 신뢰하는 깨끗한 경찰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